



NEW SPIRIT

Inho & Yeonji Park
Faith Academy Mindanao
PO Box 81305
8000 Davao City, Philippines
inho_park@wycliffe.org
yeonji_park@wycliffe.org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2년 7월

선교편지 제 45 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위하여 예일 교회의 온 교우들이 정성껏 준비하여 보내주신 선교 물품이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약 40일만에 미국 뉴욕을 출발한 엄청난 크기의 53개 박스가 저희 집까지 순적하게 배달 되었습니다. 선교품이 도착하기 전부터 물품을 보관할 공간 확보를 위하여 집안에 놓여 있는 모든 세간살이들을 치우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막상 물품을 집 안으로 들여 놓고 보니, 저희 부부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성처럼 쌓인 박스 가운데에서도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어린 아이처럼 바라만 보아도 즐겁기만 하였습니다.



박스 분류를 마친 후

약 일주일간 박스를 타고, 넘으며 땀으로 범벅이 되는 중에, 많은 설레임으로 모든 물품을 종류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보내주신 모든 책들을 마디 고등학교에 기증할 책들과 교회의 주일학교용으로 기증할 어린이 책들로 분류 하였습니다. 마디 고등학교의 도서실에 기증할 도서가 3,500권, 해변 교회에 300권, 마디 교회에 250권, 디고스 교회에 250권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책들을 기증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두 세트의 백과 사전을 비롯하여 이곳에서는 구할 수도 없는 많은 책들이 새로운 독자들에게 갈 준비를 모두 마치었습니다. 또한 옷, 신발, 장난감등들도 같은 종류로 재분류를 해서 현지인들에게 잘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류를 마친 선교품과 책들을 저희 집에서 약 2시간 거리의 디고스 지역으로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보내 온 선교품과 함께 제가 소속된 선교 기관에서 저희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증한 12대의 컴퓨터와 의료 선교에 사용할 약품등을 함께 이송하려고 하니, 저희가 준비한 트럭으로는 선교물품의 무게와 부피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새로운 큰 트럭을 수배해야만 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트럭을 빌려주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예약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트럭을 빌릴 만한 곳을 수소문 했으나 마땅한 크기의 트럭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난감한 지경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 집, 즉 저희가 세를 들어 사는 집의 주인이 모든 선교 물품을 이송할 수 있는 트럭과 더불어 선교품을 운반할 수 있도록 힘 쓸 청년들까지 보내 주겠다고 흔쾌히 제안을 합니다. 그것도 실비의 트럭 연료비만 지불하는 조건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미국에서 이곳에까지 와서 하는 사역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많았던 집 주인이 하나님의 역사로 전혀 예상치 않았던 때에 큰 힘이 되어준 것입니다. 마침내 어렵게만 보였던 선교품을 저희 집에서 선교품의 임시 보관소인 마디 고등학교의 도서실로 너무도 쉽게 이송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 4:16)**



책을 받고 기뻐하는 학생들

선교품이 마띠 학교에 도착 하자마자 고등학교의 제일 큰 형님들인 4학년 남학생들은 수업을 중단하고 선교물품을 트럭에서 도서실로 운반하는 일들을 도와 주었습니다. 선교물품 규모에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서 어쩔줄을 모릅니다. 특별히 교과서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3,500여권의 책들을 한꺼번에 갖게 되었으니, 책을 대하는 학생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학생들은 모든 물품을 도서실로 운반하고 나서 수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교실로 돌아가야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두가 책벌레인양 책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선생님들도 학생들과 별 차이가 없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책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도서실용 책꽂이 5개를 구입하여 기증을 하였는데, 책이 도착한 날로부터 거의 일주일 동안 많은 학생들이 두 명의 지도교사와 함께 밤을 세워가며 모든 책의 분류를 마쳤습니다. 마띠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고 또한 매주 한글학

교에 출석하는 '아나'라는 여학생은 영광스럽게도 (?) 도서 정리팀에 합류가 되어 그동안 도서 정리를 도왔었는데, 모든 책을 다 읽어버릴 기세로 벌써부터 책에 푹 빠져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새로운 도서실을 통하여 학생들을 잘 가르칠 많은 계획들을 이미 수립을 한 상태입니다. 전학생이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두시간씩 도서실에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게 할 계획이랍니다.

마띠 고등학교에 도서실용 책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학교 밖을 넘어서 주위 마을에까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도서실을 개방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문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마띠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도 학교에 찾아와서 부러움으로 도서실의 책들을 구경하고 갔다고 합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도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도서실로 데리고 와서 벌써부터 책을 보자고 합니다. 그러나 마띠 고등학교에서는 선교팀이 이곳에 와서 정식으로 책을 기증한 이후에 도서실을 개장하기로 하고, 든든한 자물쇠 2개를 채움과 동시에 남자 교사들이 숙직을 해가며 책과 선교품을 지키고 있습니다. 모두들 선교팀이 빨리 와서 도서실이 개장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학교에 도서실이 있고, 도서실에 책이 있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 이곳에서는 뉴스거리가 되는 엄청난 일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도서 사역의 영향력과 효과를 숫자로 표현 할 수는 없겠지만, 책을 읽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사회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귀한 일임을 확신합니다. 학생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실감나게 전할 수 없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 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 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시 123:2)

 현지인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것 중에 '메리엔다 (Merienda)'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먼저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약 350여년의 스페인의 통치 가운데 완전히 필리핀화 되어서 이들의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 버린 식문화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간식'이나 '스낵 (Snack)' 정도로 번역이 되는데, 이곳에서 사용하는 '메리엔다'는 '간식'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저희에게는 '간식'은 식사와는 별도로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는 정도이지만, 이곳에서의 '메리엔다'는 꼭 먹어야 하는 또 다른 형태의 가벼운(?) 식사입니다. 즉, 음료수, 빵, 과자, 과일등 이들의 주식인 밥이 아닌 모든 음식이 '메리엔다'가 됩니다. 그런데 가정 형편으로 인하여 식사도 제때에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메리엔다'는 이름만 있을 뿐이지만, 혹이라도 외부에서 먹을 기회가 생길 때에는 '메리엔다'가 꼭 있어야되는 아주 요상한 식습관입니다. 따라서 현지인들과 모임을 가질 경우에는 식사뿐만 아니라 '메리엔다'를 항상 옆두에 두고 계획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는 이 '메리엔다'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입니다. 아무런 모임이 없던 가운데, 학생들과 어린아이들을 모이게 해서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저희로서는 모임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과 함께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식사 시간을 피해서 (?) 각종 모임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이 '메리엔다' 만큼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해변 교회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모이는 어린이들, 마띠 고등학교에서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 매주 모이는 학생들, 특히 그들 중에서 단기 선교 준비를 위하여 별도로 모이는 학생들, 교도소를 방문 할 때마다 저희들의 손을 바라보는 많은 재소자들,..... 이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이라도 만나려면, 저와 제 아내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의 하나는 바로 그 '메리엔다'입니다. 모임의 내용을



교회에 처음으로 출석한 학생들

준비하는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들을 위해서 어떤 메리엔다를 준비해야 하나?'가 제일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작은 '메리엔다'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메리엔다' 때문에 모임에 참석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두명이 아니라 50명, 100명, 150명 이상이 되다 보니, 한 학생에게 한개의 빵이나 음료수를 준다고 할지라도 50개, 100개, 150개를 준비해야만 하는데, 보통 힘겨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러한 '메리엔다'의 부담(?)은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한끼의 식사가 급급하게 됨에 따라 특별한 절기 외에는 교회에서도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식사는 커녕 '메리엔다'도 없는 가운데 아쉬움으로 헤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배 후에 온 교우가 모여서 간단한 '메리엔다'와 함께 친교를 나누는 일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롬 14:15)**



그동안 배운 찬양을 부르는 모습

마띠 고등학교에서 한글학교를 시작한지 약 6개월만에 저희들의 기도 제목 중의 하나가 열리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한번도 가보지 못했던 고등학교 학생 16명과 선생님 2명을 교회로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카톨릭 신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타 종교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저희들과 학교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할때면, 아직도 아멘과 함께 자연스럽게 성호를 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과 약 6개월간 친밀한 교제의 기간을 지나면서 마침내 교회로 부를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었고, 감사하게도 순종함으로 학생들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마띠 교회의 목사님을 따로 만나서 교회에 처음 발을 들여놓는 이들을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작은 걸림돌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아닌 '메리엔다'입니다.

교회에 처음으로 나오는 학생들로 인하여 저희도 기쁘지만, 새 신자를 맞이하는 교회 전체도 참으로 기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 날만큼은 교회에서 '메리엔다'를 준비해 주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교회에 처음 오는 학생들이 2시간 가량의 생소한 예배를 마치고 아무런 친교도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될 형편입니다. 예배에 처음으로 참석하는 학생들에게 비취질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니 너무 아쉬워서 저희가 '메리엔다'를 준비하여 예배 후에 같이 친교를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날 저녁 감사하게도 마띠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학생들을 위하여 교회에서 '메리엔다'를 준비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여전도회원들과 상의를 한 후에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위하여 베푼 만찬

마침내 주일이 되었습니다. 긴장된 얼굴로 18여명의 학생과 선생님이 예정된 시간에 교회를 방문하여 온 교우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는 가운데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학생들이 교인들 앞에서 그동안 학교에서 배웠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학생들을 환영하며 모두 함께 교회에서 준비한 '메리엔다'를 먹을 시간입니다. 학생들이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예상과는 달리 예배당 가운데 상을 놓더니, 단순한 '메리엔다'가 아닌 온 교회가 가정별로 정성껏 준비한 점심 식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푸짐한 밥과 함께 이들이 즐겨 먹는 닭 국, 잡채와 흡사한 면, 그리고 바나나와 망고 주스가 놓여집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한 감사절 주일 수준의 최상급 만찬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학생과 선생님들의 얼굴에서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를 실감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아무쪼록 교회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 놓은 이들이 한량없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붙잡힘바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에 처음으로 출석한 학생들을 바라 보며 시종 일관 감사함으로 가슴이 먹먹한 가운데, 영혼과 육이 풍성하게 살찌는 특별한 주일을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행 2:46)

기도 요청

- 단기 선교를 위하여
- 장기 체류를 위한 비자 변경을 위하여
- 디고스 학원 선교 기관 설립을 위하여
- 흩어져 있는 자녀와 저희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